

수입 '제로' · 폐업 '속출' ...여행·관광업계 '암흑의 1년'

광주·전남 관련업계 힘겨운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과 운수·숙박 등 관련 업종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터널 속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수 급감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하면, 월급이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하나둘씩 내 보내고 빚을 내며 연명하다 끝내 폐업하는 등 불황의 골이 심각하다는 게 관련 업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몰리는 여수에서조차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숙박·여행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전남 다른 지역 관광 인프라 업종 및 시설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분양형 호텔, 경영난에 소송까지=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 돌산읍 A호텔 투자자 80명은 최근 위탁운영사와의 명도 소송에서 승소, 위탁운영을 맡겼던 호텔 객실을 돌려받는 명도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관광객 급감에 개점휴업 일주...직원 내보내고 사장 혼자 버티다 폐업 여수 분양형 호텔 수익금 중단...명도 소송 승소한 투자자들에 넘어가 수하여행·체험학습 잇단 취소에 전세버스 멈춰서는 등 '생존 발버둥'

이들은 지난 2016년 210개 객실 규모로 건설된 호텔 투자자들로, 객실 1개당 약 2억 2500만원을 주고 111개를 분양받았다.

투자자들은 전문위탁운영사에 객실 운영·관리 등을 맡기는 대신, 매달 분양금의 7%(150만원)를 수익금으로 받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익금 배당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것.

당시 분양사는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돌산대교와 거북산대교와 인접해 있는데다 여수시내·여수역과의 접근성도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내세워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수익금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위탁운영사는 운영 6개월만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다. 투자자들은 수개월 간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위탁운영사 측은 코로나19로 영업이 되지 않

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결국 투자자들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투자자들은 별도 관리자 없이 자신들이 임대하는 등 수익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 수요가 급감한 만큼 녹록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른 호텔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내 관광·일반숙박업소는 505개, A호텔과 같은 분양형 호텔도 적지 않은데, 일부 호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수익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그나마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지로 눈을 돌린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여수 상황이 이 정도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숙박업계는 사실상 고사 위

기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직원 내보내고 가족들로 버티다 결국 폐업=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업종은 여행업이다. 광주지역 여행사를 운영중인 이모(38)씨는 함께 근무했던 직원 3명을 모두 내보냈다. 5월에 한 명, 10월에 두 명의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코로나로 올해 매출이 전무한데다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끊기면서 빚을 내서 운영중인 회사에 더 이상 직원을 둘 수가 없었다는 게 이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벤처기업 지원금을 받은 터라 3년간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수익은 한 푼도 없는데 임대료를 내며 회사 문만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씨는 "손님을 모아 국내 투어라도 할 수 있지만, 흑어 투어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있어 관광한 지역이 전파라도 될 경우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탓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관광협회에 따르면 250여개 지역 여행사 중 수익도 없이 사무실 문만 열어놓은 여행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관광협회 관계자는 "470개 여행사 중 20개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이후 멈춰선 전세버스=광주·전남 전세버스 업계는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9일 광주·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건수는 1만 4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9775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통학용으로 이용되던 전세버스는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타격을 입었고 체험행사와 수학여행, 산악회나 동호회,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전세버스 업계는 특히 연중 최대 성수기인 가을 단풍철 시기에 국립공원 차량 출입이 제한되면서 대다수 버스가 한 건의 운행도 못했다.

광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기업 통근 차량을 제외하면 일감이 없다. 가을 성수기를 놓친 상황에서 비수기인 동절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까지 겹쳐 생계 자체가 어려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백 강요·반말 등 구태 못버린 검사들 잘못된 수사 관행·인권 의식 부재 여전

광주변호사회 '2020 검사 평가' 발표

국민 기대 부응할 변화 절실 지적

피의자에게 반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검사, 피의자를 비꼬며 조소하는 수사관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검사,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한 사례 등.

광주지방변호사들이 소개한 고질적 검찰의 병폐들이다. 변호사들이 직접 맞닥뜨린 사례들로,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인권 의식 부재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0 검사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검사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회가 집계해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광주변호사회가 직접 결과를 내놓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내년부터 검찰 업무와 형사절차가 공판 중심으로 바뀌면서 검찰권 행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평가를 자체 집계해 관내 검찰청에 직접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4명이 광주지검과 목포·순천·해남·장흥지청과 고검 검사 등 168명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83점이 매겨졌다. 도덕·정령성, 독립·중립성, 공정성, 인권의식·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신속성, 설득·융통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 공개된 광주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평균 점수(83.15점)보다 낮았다. 검찰청별로는 광주 고검 82.24점, 광주지검 80.25점, 순천지청 78.49점, 목포지청 78.18점 등의 순이었다.

우수 검사 5명의 평균은 92.4점. 하위 검사 점수와 3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는 게 변호사회 설명이다.

특히 우수 사례를 소개한 부분보다 반말, 수사 지연, 보완 수사 미흡 등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비판한 내용이 더 두드러지면서 눈길을 모았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반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예단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 신빙과 연결해 회유와 자백을 강요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수사를 장기간 지연하는 사례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고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찰 수사기록의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처분했다는 변호사들의 지적도 나왔다.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하는가 하면, 잦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으로 재판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한편,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친절검사는 김환(55·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 김건(40·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 김형걸(43·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검사, 천대원(45·연수원 36기) 순천지청 검사, 윤지윤(36·연수원 46기) 목포지청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자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은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각 지역 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도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 동참

광주 지역 범시민사회단체들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영호남 동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는 9일 광주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이 대결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 때문에 국민

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광주와 함께 부산과 대구, 울산, 전주 등 영호남 26개 지역 4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교도소 또 확진 재판 진행 차질

선고 공판 등 줄줄이 연기

광주교도소에서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나오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9일 광주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교도소 직원 A씨가 전날 광주 768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과 선고가 줄줄이 미뤄졌다.

교도소 직원 A씨는 하루 먼저 확진된 수용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미 A씨는 광주교도소 내 확산세가 위험 수준을 보인 지난달 전수조사 차원에서 3차례 진단검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교도소의 경우 직원 4명,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이들은 교도소 내부 별도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다.

교도소측이 수용자들의 이동을 금지하면서 이날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이 파행을 빚었다.

광주지법은 이날 형사 3단독, 형사 10단독, 형사 12부, 형사 2부 재판부의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와 공판을 연기했다. 가족·지인들에게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면회가 불가능해지고 변호인 접견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족·지인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p>광주문화신탁</p> <p>문흥본점 266-4150</p>	<p>안산지점</p> <p>안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p> <p>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p> <p>동광주지점 264-4150</p>
------------------------------------	----------------------------------	----------------------------------	----------------------------------	----------------------------------	------------------------------------	------------------------------------